

보도일시 (인터넷) 2025. 5. 12.(월) 11:00,
(지면) 2025. 5. 13.(화) 조간

배포 2025. 5. 12.(월) 06:00

해양수산부, IMO 회의서 해양디지털 신기술 선보인다

-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호주와 국가 간 해사서비스 연계 기술 공동시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13일(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2차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선박이 항해 시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선박항해장비와 호주의 해양안전정보 서비스를 인터넷(IP) 기반으로 연결하여 선박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항행경로를 즉시 제공하고 안전한 항로계획(Voyage Plan)을 육상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MCP)'에 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해양정보 서비스를 위 플랫폼에 등록하면, 개별 선박항해장비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동 플랫폼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호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플랫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연회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해양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국제표준 선도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양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책임자	과 장	한승현 (044-200-6141)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0-6142)

참고 1

해양디지털 해사안전서비스 상용화 기술 국제공동시연

□ 추진 배경

- 제12차 IMO NCSR에서는 S-100 기반 선박항해장비(ECDIS)의 인터넷(IP) 연결 프레임워크 지침개발 관련 논의 예정('25.5~)
- * S-100 : 디지털 항해 정보의 상호 융합·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서 개발하는 전자해도, 해저지형, 해류, 수심 등 총칭 개념
- **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 시스템
- 우리나라는 유럽·호주와 해사안전서비스 개발 및 기술 호환성 확보를 위해 협업 수행 중(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16~)
- ☞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MCP)'을 활용하여 전 세계 선박에 24시간 끊임없는 '해사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표준화 추진

□ 국제 공동시연 개요

- (일시/장소) '25.5.13.(화) 12:45~13:30 / IMO 본부(영국 런던)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호주 해사청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참석) IMO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 등

< 시연회 주요 내용 >

- (시연 내용)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선박항해장비(ECDIS)와 호주해사청에서 제공하는 해사안전서비스(항행경보, 항로교환 서비스)를 연계하는 국제 기술
- MCP 활용 국가 간 해사서비스 제공 기술
- ① 선박에서 해사서비스 요청, ② 한국·호주의 해양안전정보가 MCP를 통해 공유
- ③ MCP를 통해 해양안전정보와 해사서비스가 선박 내 항해장비로 전송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2:45~12:50	5'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호주 해사청)
12:50~13:00	10'	기술 시연 개요 소개(호주 해사청)
13:00~13:20	20'	기술 시연(우리나라, 호주)
13:20~13:30	10'	질의응답

참고 2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MCP) 활용 개념



< 인포그래픽 - 국제 해양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 >